

시각장애인이 학습하는 경험 을 리디자인하다.



삼각김밥

2018102095	김명철
2018102121	유창현
2018102143	주창돈

Contents

1. 인터뷰 과정
2. 인터뷰 결과
3. 인터뷰 분석
4. 정리

시각장애인이 학습하는
경험
을 리디자인하다.

인터뷰 과정

참사랑의 집 학생&사회복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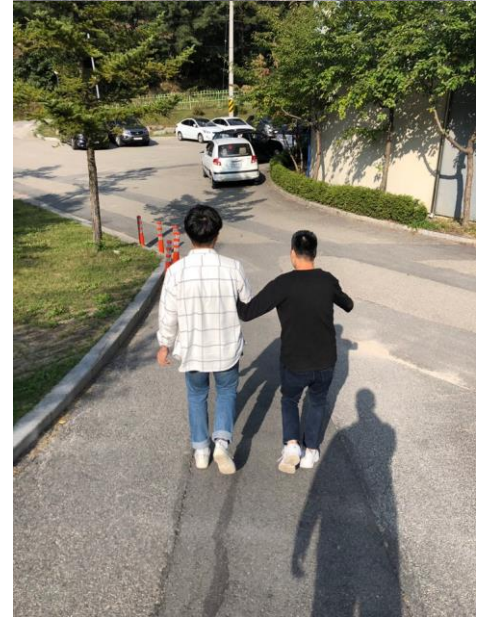
대상

참사랑의 집 학생&사회복지사

선정이유

시각장애인이 학습하는 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시각장애인들을 교육하면서 느낀 학습 과정 속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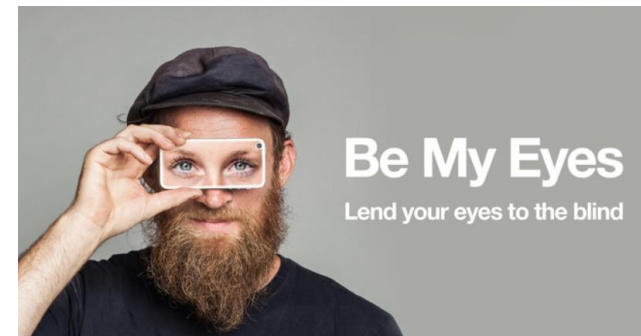


Questions.

시각장애인이 학습하는 과정에서의 불편
한점

'시각장애인이 학습을 하는 경험'을 리디
자인
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
야하는
문제점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각장애인은 어떤 방식으로 학습을 합
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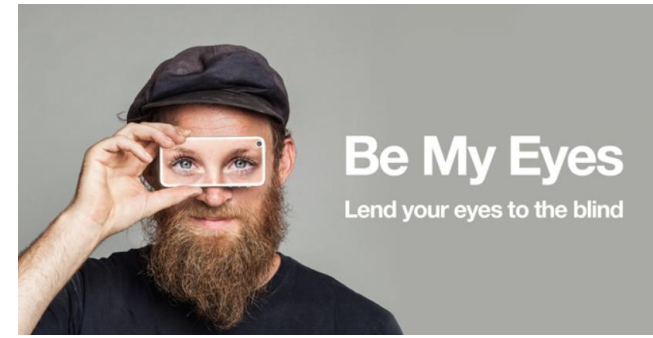
Be My Eyes 앱 개발자

대상

Be My Eyes 앱 개발자

선정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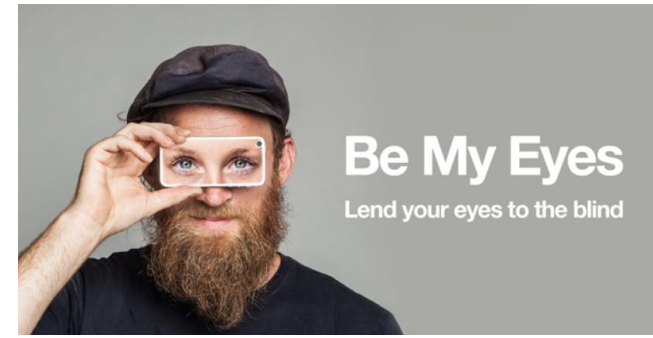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앱을 만들 때의
중요한 점들을 파악.



Questions.

시각장애인들을 공감하기 위해 사용한
방식은?

이 앱을 만들게 된 계기는?



Be My Eyes 앱 사용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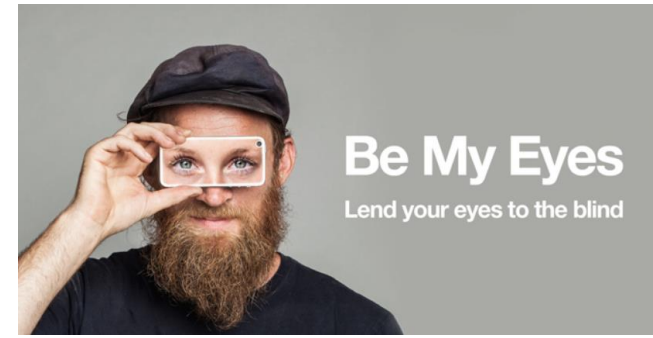
앱 사용자 – 자원 봉사자

선정이유

시각장애인들을 도와주면서 얻은 통찰력.

시각장애인들의 복지에 대한 개선점.

기존에 있는 시각장애인 지원 앱에 대한 피드백.



Questions.

어플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주로 얻고자 하는 정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복지에서 향상?

시각장애인들의 어플 사용에서의 개선점?

인터뷰 결과

-시각장애인을 공감&이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

시력이 필요한 경우는 많지 않지만,
필요할 때마다 이웃 등에게 도움을 구하러 가야함.

시각장애 친구가 Skype 등의 화상통화를 사용해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얻음.

가족이나 친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마트폰 앱으로
쉽게 자원봉사자와 연결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음.

-인력 부족 문제

현재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적 복지 큰 발전을 이
룸.

사회복지사 인력이 부족하여, 보통 교육기관에서는
외부강사
(시각장애인 교육봉사 프로그램 이수×)

외부인을 많이 낯설어하는 시각장애인들의 특징.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도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짐.

-방과후 활동 진행

대부분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육 봉사활동으로 진행

외부인을 많이 낯설어하는 시각장애인들의 특징
(문제점들이 발생)

인력 부족의 실정과 이어진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것이 권리인줄 안다

시각장애인이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큰 중요성을 가짐.

개개인에게 다량으로 가중된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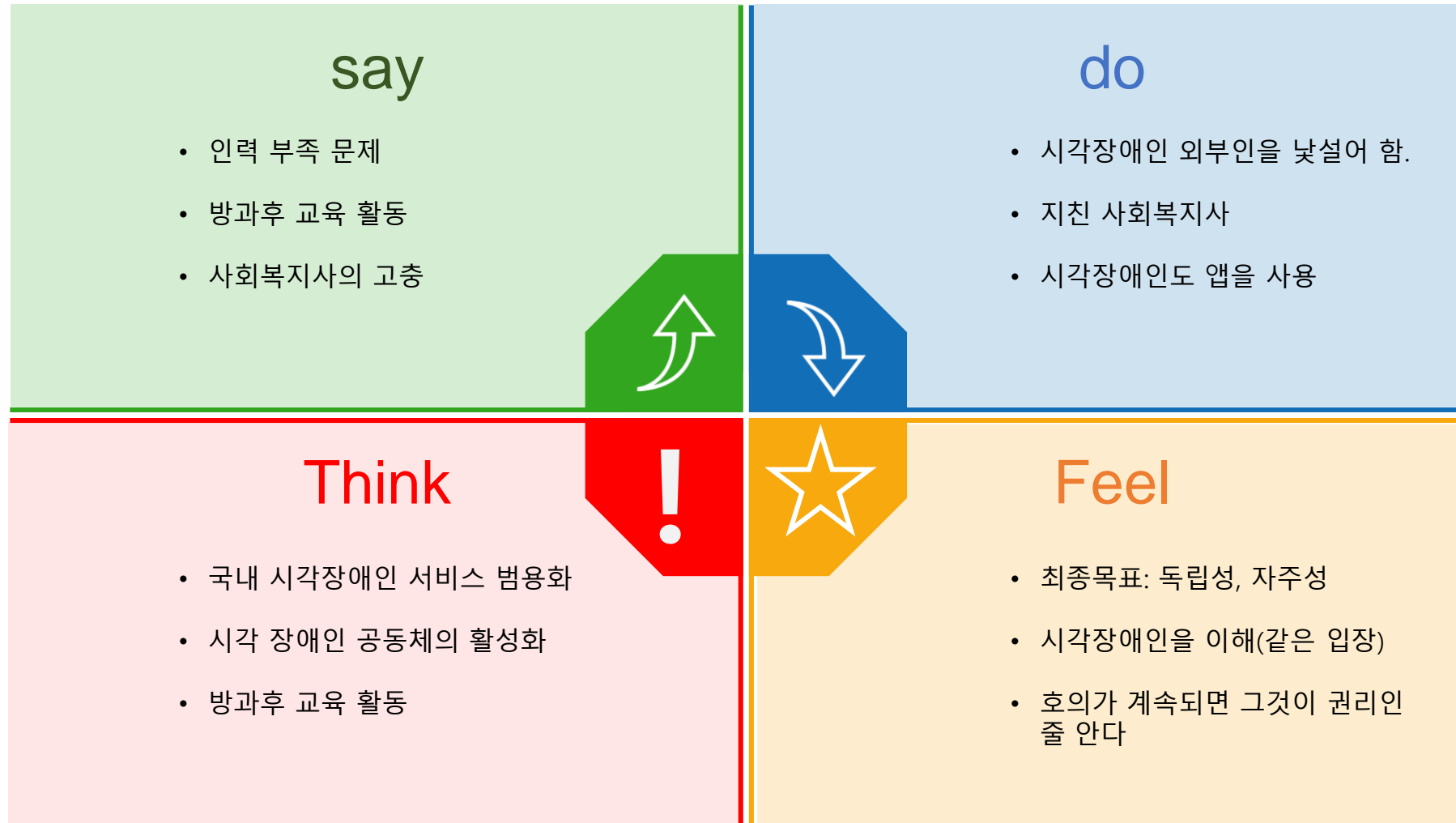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반복된
시각장애인에 대한 호의 속에서
솔직히 지치고 있다.

-최종적인 목표: 시각장애인들의 자주성

시각장애인 공동체 내에서 스스로 문제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할 필요성.

즉,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야 한다.

Empathy map



-공감지도에 대한 토의

시각 장애인이 외부인을 낯설어한다는 특징 해결

시각 장애인 공동체 내에서의 문제 해결 방안

시각장애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 극대화 방안

Need and insight!

-요약 및 결론 제시

인력 부족, 방과후 교육 활동, 사회복지사의
고충, 외부인에 대한 두려움 등

현재 시각장애인이 학습을 하는 경험 속에는
많은 문제들이 존재.

최종적인 목표, 시각장애인 공동체 내에서 스스로 문제
에
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할 필요성.

따라서,
시각 장애인 공동체 내에서 서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제공된다면 충분한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Q&A



THANK YOU

